

## 뚜렛 장애



**진성오** 소장  
신비한 심리사건

뚜렛은 1885년 프랑스 의사인 뚜렛(Gilles de la Tourette)이 처음으로 관련 증후군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뚜렛 장애라고 불리고 있다.

뚜렛 장애는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 틱과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음성 틱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복합성 틱 장애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머리를 흔들다. 얼굴을 찡그린다. 눈을 계속 깜박거리다. 코를 킁킁거리다. 헛기침을 한다. 어깨나 팔·다리 등을 움푹거리다. 한숨을 쉰다. 이상한 소리(奇聲)를 발한다.

보통 16세 이전 아동기에 시작되고 육설이나 외설적인 말이 동반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장애는 소녀보다는 소년에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5세에서 8세 사이에 단순 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음성 틱은 처음에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시작되지만 욕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이러한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강박성, 우울, 불안의 정도를 연구했을 때 뚜렛 환자들은 우울증 환자 정도의 강박성을 보였으나 우울이나 불안 수준은 우울군보다는 낮고, 정상 집단은 높은 성적을 얻었다고 한다.

증상의 심각도는 역시 다양해서 심한 경우는 춤을 추는 듯한 복잡한 형태의 틱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간혹 드물게는 갑작스런 틱 행동으로 머리를 찡거나 피부를 상하게 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뼈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뚜렛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유전, 뇌구조이상, 뇌생화학적 이상, 호르몬 이상,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의 뇌손상, 세균감염과 관련

된 면역기능 계통의 반응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뚜렛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약 50%의 뚜렛 장애 환자들이 ADHD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현재로는 뚜렛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장애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습관반전법이라는 행동치료를 활용하는데 이는 운동 혹은 음성 틱이 대신하는 행동을 하게 하여 틱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뚜렛 증상 자체보다는 그 증상이 주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상상해 보라, 대학 수업 시간에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지만 갑자기 '킁킁' 하는 소리를 낸다면 자신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이런 면에서 음성 틱은 운동 틱보다 더 고통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뚜렛도 사실 장애 자체보다 '장애가 사회적 장면과 타인에게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통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착률을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시기를 2개월 연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늘어난 원리금 만큼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더하고(1단계) 오는 9월부터는 금리에 0.75%p를 더해(2단계)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스트레스 DSR의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민·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오는 9월까지 미리 대출을 받아두라는 말과 같다.

부동산 PF의 정착률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간 내 대출을 받아 집 사라고 시간을 벌여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 관련해 '부동산 피우기'와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분간

시장의 시선은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흑자는 말했다. 누군가의 저의가 의심스러울 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가계부채를 부추기고 있다면 금융위 스스로도 부동산 피우기가 아닌 지 둘 아불 필요가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간 5조3000억원이 늘며 708조57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 2.2조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잔액은 4월 4.4조원, 5월 5.2조원, 6월 5.3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시기를 놓쳐 괜한 힘을 더 쓰게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일 (음 5월 2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로는 고맙기도 하다. 48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결단이 필요. 60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척이 근심을 가져온다. 72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손리이다. 84년생 자신의 잘못은 본인이 해결해야.
- 소** 37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4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고민이 일시에 해결. 61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진다. 73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5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니.
- 호랑이** 38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50년생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하 하루. 62년생 어제 잘못을 오늘 또 되풀이 하지 않도록. 74년생 밖은 전정태이니 이 작은 신중하게. 86년생 새끼 고쳐 쓰는 속성으로 항상 바쁘다.
- 토끼** 39년생 건강을 고쳐야 할 것을 버려두지 마라. 51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나에게 돌아온다. 63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75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 87년생 나이 든 사람의 저력을 찾아보라.
- 말** 40년생 졸작이라도 내 작품이니 흐뭇하다. 52년생 일회일비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64년생 많은 벌기 쉬워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조심. 76년생 고단해도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88년생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도 움직인다.
- 뱀** 41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3년생 열을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않도록. 6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다. 77년생 내용이 충실해도 포장도 신경 써보라. 89년생 절악과 구두쇠는 성향이 다른 것이다.
- 말** 4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54년생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는 날이다. 66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된다. 78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인 인내를. 90년생 출세하는 관운은 공부든 기술이든 실력인데.
- 양** 43년생 가까운 친구의 병문안을 하러 가게 된다. 55년생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 67년생 수 없는 날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도 없다. 79년생 꾸준한 행을 하니 몇 배로 돌아온다. 91년생 양보와 흰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 원숭이** 44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짐을 인식. 56년생 작은 집이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큰 행복. 68년생 열차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80년생 상대의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나 속아 줄 수밖에. 92년생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으니.
- 닭** 45년생 배우자를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57년생 시련처럼 보이지만 건디게 된다. 69년생 자식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 81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 큰 낭패를 본다. 93년생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날이다.
- 개** 46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58년생 언행이 일치하기는 어려우니 평소 연습하라. 70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 할 수 없다. 82년생 취침 전에 내일을 위한 하루 마무리 기도를 해 보라. 94년생 허상을 그리니 되는 일이 없다.
- 돼지** 47년생 역사적으로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5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두드려야 한다. 71년생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지녀라. 83년생 평소 익숙한 일도 가벼이 하지 마라. 95년생 하루가 다르게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루는 현실.

## 김상회의 四季 운을 끌어오려면

천지만물은 음양오행의 속성이 다 배속되어 있는데 운은 독립적 기운이겠으나 알 수 없는 누군가와 유기적 관계로 전개된다. 때때 운운 기운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으나 흐름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니 삶이 고단할 경우 불평등하다고 느낄 것이며 초자연적인 힘으로 좌절될 때는 때를 잘못 만나서라고 한다. 운이 들어온다는 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행로가 진행되는 큰 흐름을 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분야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진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한결같이 운이 좋아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원하는 성취를 이루려면 성공한 사람들 말처럼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 운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운을 스스로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운을 끌어오려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먼저 말 습관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휘로 대화를 하는 게 우선이다. 상대방 말에 긍정적 공감을 보이며 맞장구를 치는 것도 좋다. 이런 말 습관은 사람이 모여들게 하고 그렇게 호감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운도 함께 따라온다. 분노조절장애라는 말이 흔하게 쓰일 정도로 화를 쉽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화난 표정을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사람이 떠나면 기회가 떠나고 운이 떠난다. 명당에 거주하는 것도 운을 부르는 방법이다. 명당은 운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좋은 일이 생기고 명당에 묘지를 쓰면 후손들에게 복이 이어진다.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한 곳 살면서 큰 병에 걸리지 않은 곳 언제든 마음이 편안한 곳이 명당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의심치 말고 노력한다는 것은 운을 부르는 소명이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8	7	9	4	6	2	9	1
9	9	2	8	7	1	4	6	8
6	1	4	2	9	8	8	9	7
9	9	8	1	6	4	8	7	2
7	4	1	8	2	9	6	8	9
8	2	6	9	8	7	1	4	9
1	8	8	4	9	9	7	2	6
4	6	9	7	8	2	9	1	8
2	7	9	6	1	8	9	8	4

4	2	6	8	7	8	1	9	9
7	8	9	1	2	9	4	8	6
9	8	1	6	4	2	8	7	9
1	9	4	2	9	8	6	7	8
6	9	8	7	1	4	9	2	8
2	7	8	9	8	6	9	1	4
8	6	7	9	2	8	4	1	1
8	1	4	2	6	7	8	9	1
9	4	9	8	4	1	7	6	2